월요논단

김 봉 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폭염이 지속되면서 '더워서 죽겠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기온이 사상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에 맞먹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축산동물, 수산 양식물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당장 가까운 중국만 해도 많은 비가 내려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고, 앞서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갑작스런 홍수로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미국은 열돔 현상에 따른 이상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 전 지역이 동시다발적인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이상기후의 70%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자연재해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란 위기 속에서 교훈을 얻었다. 바로 사람들이 활동을 줄이자 생태환경이 잠시나마 회복됐던 것이다. 아시아, 유럽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각국 대기오염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폐쇄된 해변에는 멸종위기 종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는 곧 코로나에 익숙해졌고, 수많은 마스크와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의 사용 증가로 이어졌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교훈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이 희망을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미 이탈리아와 호주는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을 필수로 지정했고, 북유럽 핀란드도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오염과 이상기후의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배우고 있다. 핀란드의 환경 교육을 좀 더 살펴보자. 핀란드의 교육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연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퀴즈나 체험을 통해 배우고, 12세가 되면 생물학, 지리학 등 여러 과목에 일정량 이상의 환경 관련 내용을 담아 환경오염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운다. 특히 핀란드는 학생 10명당 환경교육 전문 교사를 1명 배치하는 등 환경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채택한 곳은 열 곳 중 한 곳 꼴이며 환경 교사는 35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어린이들이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발족한 핀란드 응용과학대학의 교수는 "자연을 돌보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들이 살 곳은 없을 것"이라며 환경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초래한 이상기후로 망가져 가는 지구대신 회복되고 있는 자연을 남겨주려면 지금 당장의 실천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환경 교육이 필요하다.

사설

바다로 방류되는 악취 오수, 언제까지…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이 여전히 정화안된 기준치 초과 방류수를 바다로 보내고 있다. 제주 앞바다가 악취와 오수로 변하는 현실에 도민들은 분노하지만 6년째 '상황' 불변이다. 도가 시설 현대화에 나서도 완공까지 4년 더 기다려야 할 처지에 할말을 잃는다.

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최근 도의 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올 6월 도두처리장 점검시 방류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ℓ당 40.3~61.4㎎으로 기준치(ℓ당 40㎎)를 초과한데다 총인(T-P)도 ℓ당 2.227~4.599㎎으로 기준치를 최대 2배 이상 넘었다. 지난 1월 점검에선 도두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부유물질(SS)이 기준치(ℓ당 10㎎)를 최대 2배 넘은 ℓ당 19~20㎎으로 나왔다. 도두하수처리장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기준초과 하수를 바다로 방류했다는 얘기다. 여전히 시설 용량 부족으로 제대로 하수처리를 못하는 것이다.

도민 모두가 6년째 오수로 물드는 바다를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에 도정의 책임을 재론않을 수 없다. 도정이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한 하수량 급증에 대처 못했고, 시설증설에도 늑장인 탓이 크다. 도가 뒤늦게 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나섰지만 2025년 완공예정이라 '하수처리 대란'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3년전 도정을 책임진 원희룡 지사가 하수처리 대란을 대비 못했다는 도의원 질의에 "관광객 내가 데려왔나, 하수처리량 내가 증가시켰느냐"고 반박해 도민들을 아연실색케 한 일이 있다. 도정이 '하수 대란'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해하고도 남는다. 도정이 달라져야 한다. 그간 업무 소홀을 인정하고, 시설 증설을 앞당겨야 한다. 또 하수처리량을 줄이기 위한 대도민 적극 행정도 절실하다. 마냥 관광객 증가나 시설 부족 탓만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제주의 보고 곶자왈, 보전방안 서둘러야

곶자왈은 제주 생태계의 보고다.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보전해야 할 제주의 곶자왈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이미 상당 면적의 곶자왈이 사라지거나 파괴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곶자왈을 보호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곶자왈에 대한 보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진행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는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기존 곶자왈 경계 106㎢보다 6.5㎢ 줄었다. 또 곶자왈지대에는 기존에 없던 36.4㎢가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곶자왈 중 43.0㎢는 현장조사 결과 곶자왈지대에서 빠졌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 중 전체의 34.5%(12.261㎢)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 65.5%(23.294㎢)는 사유지로 나타났다. 때문에 곶자왈 인근지역 주민과 토지주의 공감대 형성이 보전방안 마련 과정에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달 19일까지 토지주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의견청취 후 올해 말 곶자왈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어쨌든 곶자왈 보전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이미 각종 개발사업으로 곶자왈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이 2년전 밝힌 곶자왈지역의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곶자왈지역에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훼손된 면적이 자그만치 29.4㎢에 달한다. 마라도 면적의 100배에 가까운 곶자왈이 사실상 망가진 것이다. 앞으로 개발 수요가 늘어날수록 곶자왈은 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곶자왈 보전방안은 물론 중장기적인 사유지 매입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열린마당

'하영올레' 전면개장에 거는 기대

김 태 엽
서귀포시장

공직을 은퇴한 작년 초. 서귀포시 도심지의 공원들을 자주 걸었다. 그리고 떠올렸다. 천지연, 정방폭포로 흐르는 이 공원들을 연결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길들에 널려있는 관광, 문화, 마을자원을 엮어보면 어떨까?

그러다 지난해 7월, 시장에 취임했다. 급히 길에 대한 전문가인 제주올레와 관광진흥과 직원들과 서귀포 공원들을 연결해 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제주올레와 제주관광공사와 협약을 통해 '하영올레'를 만들어 나갔다. 마침내 1년이 지난 2021년 7월 31일, 시장 취임 직후 준비한 서귀포 도심속 올레길인 하영올레 1, 2, 3코스가 정식 개장했다.

'하영'은 제주어로 많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하영올레는 '많이 오는 길'과 함께 '많이 올래?'처럼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코스별로 테마가 있는데 1코스는 자연과 생태, 2코스는 문화와 먹거리, 3코스는 하천과 마을로 총 22.8㎞로 이뤄져 있다.

하영올레에 거는 기대는 너무나 크고 다양하다. 사실 대부분은 하영올레의 개발부터 전면개장까지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주문한 것이다.

먼저, 하영올레가 관광객들에게 서귀포시를 방문할 이유와 머물 동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가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하영올레는 올해 말 야간개장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들은 주야간으로 안심하며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인 서귀포시민의 걷기 실천율과, 반대로 상위권인 비만율이 개선돼 시민 모두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세번째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과 개별관광 트렌드에 맞게 하영올레를 걸으며 관광객이 분산돼 안전한 관광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시민, 관광객이 걸으며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귀포시도 길을 돌보면서 매력을 높여갈 것을 약속드린다.

뉴스-in

원 지사 "제주 아들로 살아갈 것"

사퇴 선언 전 평화공원 방문

○…제주도지사 사퇴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가 1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제주의 아들로 살아가겠다"고 다짐.

원 지사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4·3평화공원 위령 제단에 참배하고 위패봉안실을 둘러본 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과 전국화를 넘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주인의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전도사이자 제주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 이상민기자

월동무 면적 줄이기 방법

○…과잉생산이 반복되는 제주산 월동무의 적정재배면적 추정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태풍·한파 피해를 감안해도 출하 전까지 953ha를 감축해야 하다고 제시하며 향후 감축 방향이 주목.

용역진은 평년 재배면적이 5964ha인 월동무 가격안정을 위해 출하 전, 출하 후 등 다단계 감축 필요성을 제시.

제주농협 관계자는 "2018~2020년 3년 연속 월동무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인들이 올해는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24시간 기동봉사단 운영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제주시가 현장대응 24시간 기동봉사단을 운영.

시는 여름철 상수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직원 6명을 투입해 각각 동·서부로 나눠 상수도 급수 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등 구슬땀.

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물 사용량이 늘고 상수도 관련 생활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기동봉사단을 적극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부 고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애월읍회 회장 고용석 어머니 진주강씨 선옥(향년 85세)께서 2021년 7월 29일 15시 27분 급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8월 1일(일요일)
▶발인일시: 2021년 8월 2일(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층 301호 분향실
▶장 지: 장전목장

남편 고창규
아들 고용석 며느리 김귀녀
아들 고을석 정재영
딸 고혜정 사위 김재택
딸 고정림 이경헌
손자 고성빈 외손자 이길범
고성훈 규민
고남현 외손녀 김정희
손녀 고정우 성은
외손부 신윤정

※ 연락처 :
고창규 010-3691-8061, 고용석 010-4138-2897
고을석 010-4612-3912, 고혜정 010-3888-6211
고정림 010-8864-2194, 김귀녀 010-7238-2897
정재영 010-9479-3912, 김재택 010-3696-7153
이경헌 010-3706-2194

부 고

현명진 어머니 풍천임씨 호빈(향년 92세)께서 서기 2021년 7월 30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8월 2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8월 3일(화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함덕제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대흘리 명담머루 가족공동묘지

남편 현천관
아들 현명진 며느리 문영란
현광진 최규화
딸 현금숙 사위 문제남
현경숙 강용범
현인숙 김두철
현연숙 고창근
현봉숙 고길홍
손자 현승룡
현승한

※ 연락처 : 현천관 010-2662-8008
현명진 010-8661-8662
현광진 010-6320-6296

부 고

강경필(탐라골프연습장 대표) 아버지 신천강공 영호(前제주미협회장, 前제주예총회장, 서양화가, 향년 77세)께서 서기 2021년 7월 31일 18시10분경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8월 2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8월 3일(화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99골 선영

부인 문정옥
아들 강경필 며느리 현은미
경덕 줄리
딸 강주연
혜순
은숙 사위 한 규
은정
손녀 강서진 외손녀 한지유
손자 레오 지윤

※ 연락처 : 문정옥 010-3691-5808
강경필 010-3698-8626
강경덕 010-5393-2531
한 규 010-5291-1399
강은정 010-8664-821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파평윤공 창성(향년 6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8월 2일

부 인 김 수 연
아 들 윤 태 영
딸 윤 지 영

채권자이의제출공고

2021년 7월 30 일 주식회사 덕산건설안전(대표이사 황동진) 과 주식회사 길산(대표이사 이진석) 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회사 덕산건설안전 의 자본금 595, 000, 000원중 주식회사 덕산건설안전이 보유하고있는 전문건설업 자본금300, 000, 000, 원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길산에 분할합병 하고 전문건설업 에 관련된 채권채무는 주식회사 길산이 승계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공고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80
주식회사 덕산건설안전 대표이사 황동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80
주식회사 길산 대표이사 이진석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